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Parents Conflicts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김 지 현*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강 사 조 윤 희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 박 성 운

Dept.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Kim, Ji-Hyun

Dept.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Instructor Cho, Yun-Hee

Dept. of Family &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Park, Sung-W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ly expected High School Students-Parents Conflicts, centered on the youth of their earlier period in urban areas. For this attempt, 430 male students and 382 female students were selected as samples from high schools in Daegu City. For data analysis, mean,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and Scheffé test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is research is classified into 5 sub-categories under the titles of expected Conflicts through Factor Analysis.

* 교신저자 : 김지현(E-mail: sandra0317@ynu.ac.kr)

2.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mutually expected High School Students-Parents Conflicts are low level(1.8point/4.0).

3. There are differences in Students-Parents Conflicts according to the students' individual variables.

주요어(Key Words) :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갈등(conflicts), 개인변인(individual variabl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 속에서 갈등이란 필연적이며,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발달단계 중 청소년기는 가족관계 특히 부모 및 또래관계 등에서 흔히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오래 지속되는 친숙한 관계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갈등이 은폐되어 있거나 자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Rubenstein & Feldman, 1993).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하고 있듯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는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도기이며 부모와의 관계를 재조직화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의 자녀와 부모가 잘 지낼 때조차 서로 갈등이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문제 뿐 아니라 일상적 일에 관한 것’(Smetana, 1989)이라는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Vincent(1975)는 청소년기의 욕구를 첫째,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민주적 행동이 강하며 둘째,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셋째, 이성을 그리워하며 권위에 반항적이고 넷째, 편견 하에 비정상적 행동을 할 때가 있으며, 다섯째, 사회적 통찰력에 있어서 부모를 비판하고 불신하기 쉬운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이에 비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동기와 동일하게 다루며 자녀의 자기표현과 주장을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불순종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통제와 잔소리로 인지하면서 부모자녀관계는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띄게 된다(신효식, 이경주, 2001, 재인용).

이처럼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필연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그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

을 경우, 청소년 비행, 음주, 흡연 등과 같은 문제가 점차 늘게 되고 더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범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 특히 고교시절의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갈등이 더해져서 생겨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이후의 인간적인 성숙에 큰 지장이 있으며, 범죄나 약물, 가정폭력 등과 연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한다. 최근 청소년 비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의 부적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경숙, 1987; 김경화, 1988).

이처럼 부모 자녀 사이에 있어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동시에 자녀에게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적 문제 내지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신효식, 이경주, 2001, 재인용).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수연, 1997; 나은아, 1995; 문충배, 1988, Ellis-Schwabe & Thornburg, 1986)은 상당수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작 가장 심한 입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갈등에 관한 연구(김경숙, 1987; 안병조, 1983)는 오히려 미흡한 상태인데다 90년대 이후 국내에선 새로운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에 부모와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 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 3)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대구 수성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4일~3월 20일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체대상은 총 840명이며, 이중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자료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12부(남 430명, 여 382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3.0%, 47.0%로 비슷하며, 인문계가 81.7%로 자연계보다 많고, 부 연령은 45~50세 사이가 56.0%이고, 모 연령은 45세 미만이 58.9%으로 많았다. 또한, 부 학력에서 대학원 이상이 19.0%, 모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7.0%로, 과반수 이상이 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학력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43.6%로 많은 편이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85.4%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부, 모, 형제, 친구,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85%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용돈만족도는 75.6%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을 보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계열, 부모님의 연령, 부모님의 학력, 월수입, 부모님의 직업, 가족형태, 생활에 대한 만족도(부 만족도, 모 만족도, 형제만족도, 친구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모갈등척도

부모갈등에 관련된 척도는 조승희, 김현자, 도희숙(2006)의 역할기대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

구자가 6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갈등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81$ 이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812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430(53.0)	부 직업	자영업	162(20.3)
	여	382(47.0)		회사원	185(23.1)
계열	인문계	658(81.7)		공무원	119(14.9)
	자연계	147(18.3)		사업	105(13.1)
부 연령	45세미만	226(28.0)		전문직	127(15.9)
	45~50세	451(56.0)		기술자	43(5.4)
	51세이상	129(16.0)		기타	59(7.3)
모 연령	45세미만	475(58.9)	가족형태	핵가족	697(85.4)
	45~50세	282(34.9)		확대가족	78(14.6)
	51세 이상	50(6.2)	부 만족도	불만	100(12.5)
				만족	701(87.5)
부 학력	고졸이하	213(26.7)	모 만족도	불만	63(7.8)
	대졸이하	434(54.3)		만족	742(92.2)
	대학원이상	152(19.0)	형제만족도	불만	88(11.4)
				만족	684(88.6)
모 학력	고졸이하	346(43.3)	친구만족도	불만	41(5.2)
	대졸이하	398(49.7)		만족	754(94.8)
	대학원이상	56(7.0)			
월수입	100만원미만	103(14.2)	가정생활 만족도	불만	93(11.7)
	100~200만원 미만	195(26.7)		만족	701(88.3)
	200~300만원 미만	210(28.8)	학교생활 만족도	불만	116(14.6)
	300만원 이상	221(30.3)		만족	681(85.4)
모 직업	유	348(43.6)	용돈만족도	불만	190(24.4)
	무	450(56.4)		만족	588(75.6)

* 무응답의 경우 missing value로 처리하였으므로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 부모갈등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전체
Cronbach's Alpha	.964	.963	.915	.930	.892	.981
문항 수	21	19	5	5	6	56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부모갈등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다섯 요인으로 추출하였고, 부하 값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56문항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그리고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부모갈등의 요인구조

고등학생의 부모갈등 척도의 요인구조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부모갈등의 요인구조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고유치	27.465	3.606	2.164	1.796	1.027
분산 설명변량(%)	49.045	6.439	3.864	3.206	2.508
누적 설명변량(%)	49.045	55.483	59.348	62.554	65.063

<표 3>에 의하면, 요인 1은 21문항으로, 고유치는 27.465이며, 설명변량은 49.045%이며, '개인생활'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19문항으로 고유치는 3.606이고, 설명변량은 6.439%이며, 주로 의사소통, 지지, 존중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5문항으로 고유치는 2.164이고, 설명변량은 3.864%이며, 이성교제의 개방성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성문제'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5문항으로 고유치 1.796이고, 설명변량은 3.206%이며, '인터넷 사용'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6문항으로 고유치 1.027이고, 설명변량은 2.508%이며, '생활습관'으로 명명하였다.

<표 4> 부모갈등척도의 요인별 내용과 문항

요인	요인명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1	개인생활 (21문항)	50. 부모님이 나의 자원봉사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717
		60. 내가 거친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700
		57. 내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86
		47. 부모님이 나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50
		49. 부모님이 나의 종교 선택을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602
		53. 내가 용돈을 계획성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65
		59. 부모님이 나의 다이어트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612
		58. 내가 무분별한 성행동,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38
		48. 부모님이 영화, 연극, 음악회 등에 나와 함께 가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69
		46. 내가 인스턴트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99
		54. 내가 과외공부나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645
		51. 부모님이 나에게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64
		44. 부모님이 아침에 나를 깨워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87
		52.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89
		55. 내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절제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45
		63. 내가 영화,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624
		45. 내가 유명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58
		61. 휴대폰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07
		62. 부모님이 나의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558
		56. 내가 스트레스(두통, 짜증, 불안, 건망증)로 고통 받고 있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04
		42. 부모님이 내가 머리 염색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457
2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19문항)	19. 내가 결정한 것을 부모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725
		15. 부모님이 나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708
		14.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부모님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기를 원한다.	.683
		18. 나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한다.	.633
		22. 부모님이 나의 취미생활을 존중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86
		20. 부모님이 내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710
		25. 부모님이 내 성격이 나쁠 때 격려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03
		21.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90
		26. 부모님이 나의 학습 이외의 다양한 활동(취미, 여가)을 허용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68
		24. 부모님이 나의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49
		10. 부모님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기를 원한다.	.678
		12. 부모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40
		13.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582
		9. 부모님이 나의 이야기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94
		16. 부모님이 나를 형제, 자매와 비교하지 않기를 원한다.	.560
		23. 부모님이 나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624
		2. 내가 친구들과 결정한 일을 부모님이 존중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11
		29. 부모님이 대학 진학 문제에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589
		3. 내가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상담자의 역할을 해 주시지 않기를 원한다.	.495

3	이성문제 (5문항)	6. 부모님이 나의 이성교제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95
		5. 부모님이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86
		4. 부모님이 나의 이성친구에 대해 이해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73
		8. 부모님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40
		7. 부모님이 내가 종교단체를 통해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을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79
4	인터넷 사용 (5문항)	35. 내가 인터넷을 할 때, 부모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97
		34. 내가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812
		33. 내가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32
		36. 내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성적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40
		38. 내가 인터넷 사용을 절제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762
5	생활습관 (6문항)	31. 내가 성에 관한 책이나 드라마, 영화 보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76
		32. 부모님이 아들, 딸에 대해 평등하게 대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37
		17. 부모님이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34
		30. 내가 성에 관한 책이나 드라마, 영화 보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06
		27.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77
		28. 부모님이 내가 대인관계(친구, 교사 등)에서 원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687

2. 부모와의 갈등수준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것은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1.89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M=2.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M=1.99$), 이성문제($M=1.97$), 개인생활($M=1.74$), 생활습관($M=1.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갈등수준

N=814

변인	하위 영역	M	SD
부모와의 갈등	개인생활	1.74	.73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1.99	.76
	이성문제	1.97	.87
	인터넷 사용	2.04	.88
	생활습관	1.70	.71
	전체	1.89	.67

3.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 차이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 변인으로 성별, 계열, 모 만족도, 부 만족도, 형제만족도, 친구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 변인으로는 부 연령, 모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월수입, 부 직업, 모 직업, 가족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와의 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 개인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 차이

개인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성별에 있어서, 개인생활($p < .001$)과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성문제, 인터넷사용, 생활습관과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으로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있어서, 개인생활은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고,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와 인터넷 사용은 $p < .01$ 수준에서 차이가 났으며, 이성문제, 생활습관 그리고 전체에서는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문계($M=1.93$)가 자연계($M=1.72$)보다 갈등수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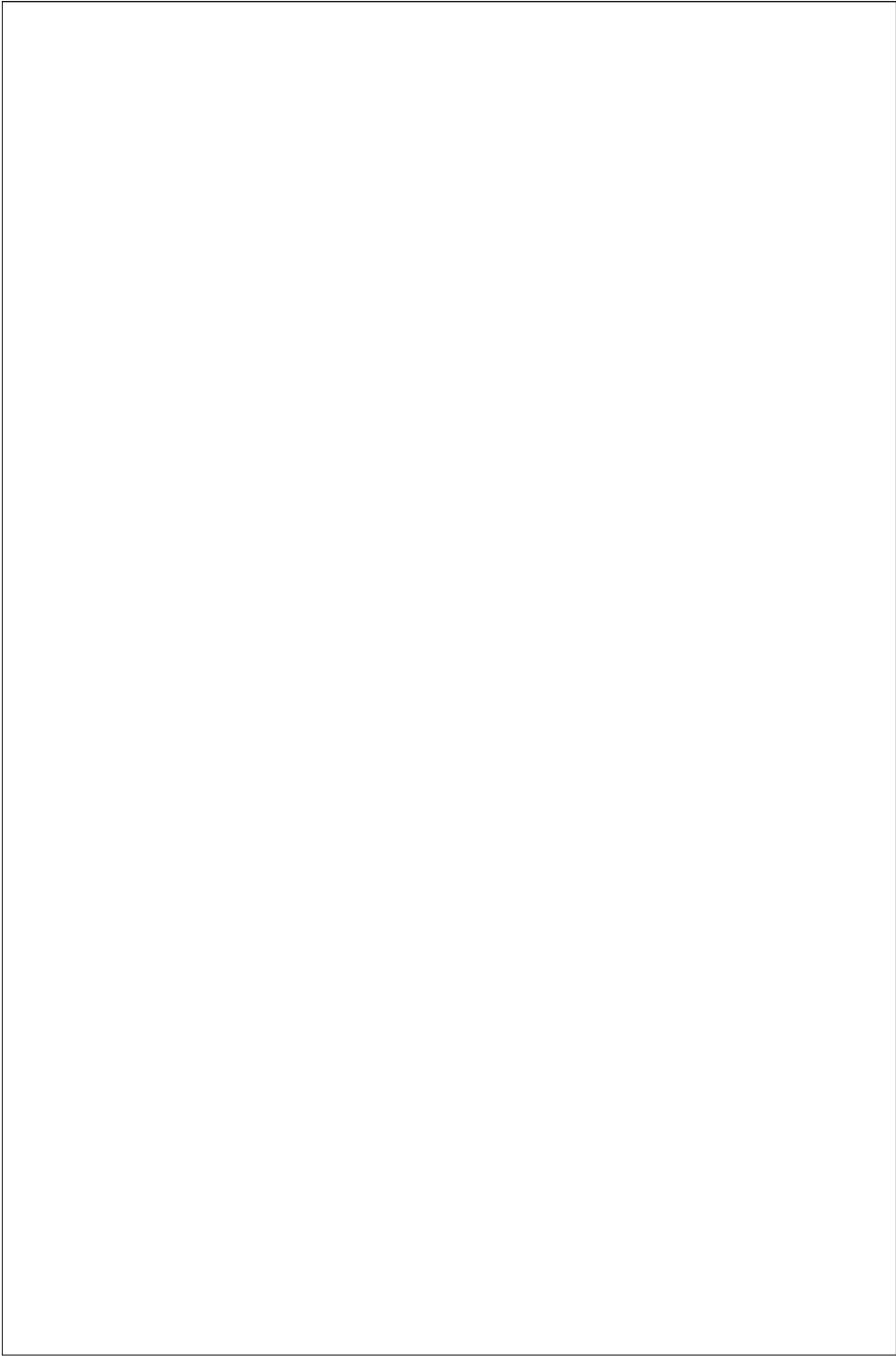
모와의 만족도는 이성문제는 $p < .05$ 수준에서, 개인생활, 인터넷 사용, 생활습관은 $p < .01$ 에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전체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모와의 만족이 불만($M=2.19$)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M=1.86$)보다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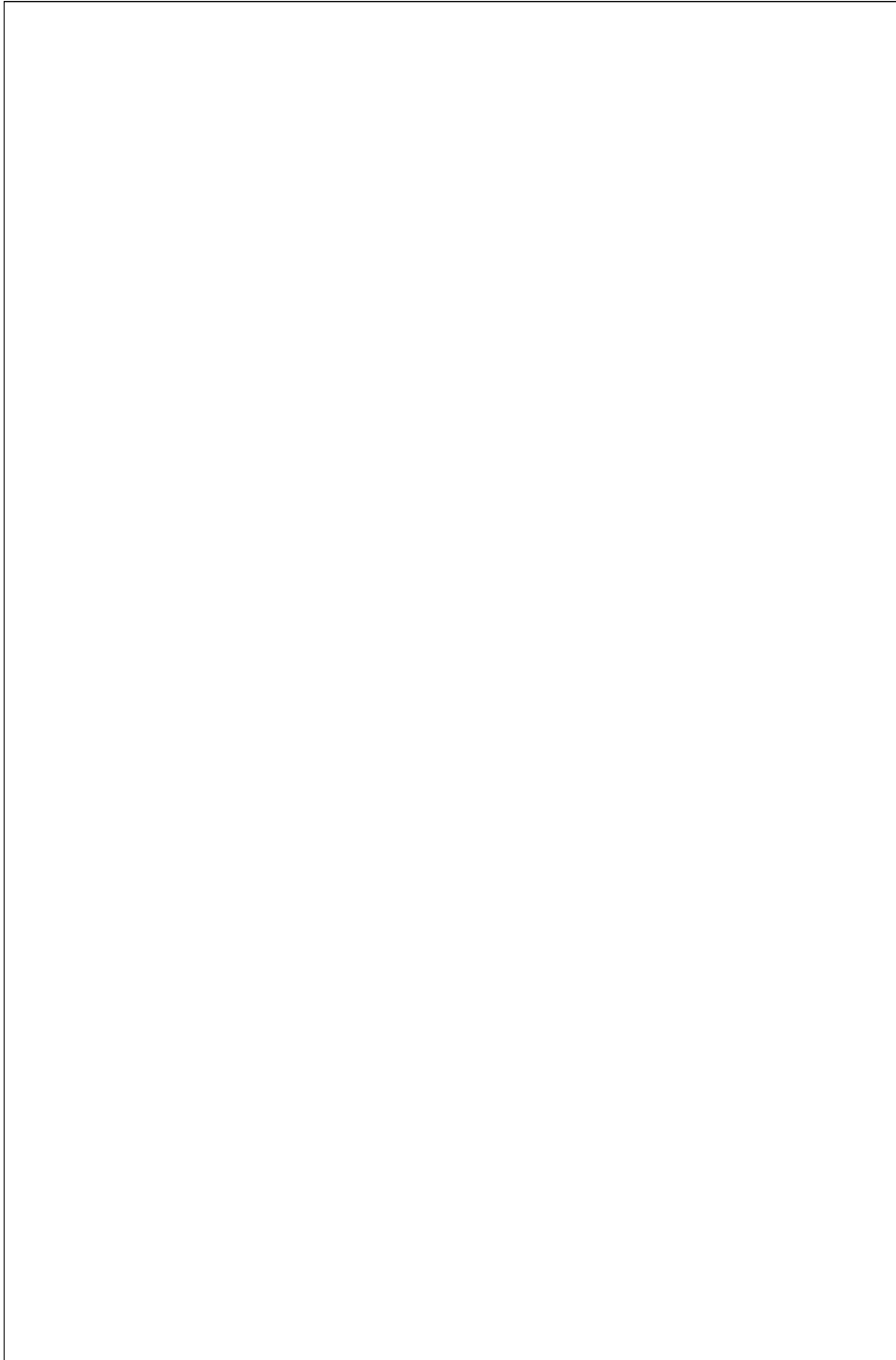
부와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개인생활과 이성문제가 $p < .05$ 수준에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인터넷 사용, 생활습관, 전체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와의 만족도 역시 불만($M=2.14$)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M=1.86$)보다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형제만족도는 인터넷 사용과 생활습관, 전체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는 $p <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개인생활과 이성문제는 차이가 없었다.

친구만족도는 생활습관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으며, 개인생활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했다.

가정생활 만족도는 이성문제를 제외한 모든 갈등요인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 불만($M=2.17$)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M=1.86$)보다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은 개인생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생활습관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용돈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불만($M=2.21$)인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M=1.78$)보다 갈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부모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 차이

부모 변인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모직업(개인생활과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부모연령, 부모학력, 월수입, 부직업과 가족형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의 직업에서 개인생활($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단($M=1.81$)이 없는 집단($M=1.69$)보다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 모직업 유무에 따라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고, 역시나 직업이 있는 경우($M=2.05$)가 없는 경우($M=1.94$)보다 갈등의 수준이 높았다. 나머지 이성문제와 인터넷 사용, 생활습관, 전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 수성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도구는 부모역할 기대척도와 부모갈등척도를 사용했으며, 자료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개인생활,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 이성문제, 인터넷 사용, 생활습관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안병조(1983)에 의하면 고등학생이 겪는 갈등을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 학습활동, 생활관, 진로문제, 가족문제, 친구문제, 외모 및 건강, 경제문제, 이성교제, 종교문제의 순이었으며 특히 부모의 기대와 능력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나은아(1995)는 중 2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학교성적, 일상생활 태도, 용돈, 이성문제, 교우관계 등에서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김수연(1997)은 중 2학생이 부모와 경험하는 갈등영역을 숙제와 학교성적, 청소, TV시청, 주말시간보내기, 형제자매관계 등에서 갈등을 자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도 앞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주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요인과 성적에 관련된 변인은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성문제에 갈등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터넷 사용이 요즘 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인터넷 사용을 절제하고 있다는 점을 부모님께서 몰라주기 때문에 갈등이 비롯되며, 또 부모님께서 인터넷 게임을 허용해 주시지 않는 것에 있어서 갈등이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낮은 수준(4점 만점 기준 1.89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게 나타난 이유는 고등학생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으며, 또 이 시기 자체가 또래관계와 인터넷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청소년의 성향에 따라 갈등을 표출하는데 있어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방식을 찾기 때문에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생활과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적으로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남녀에 따른 갈등정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신효식과 이경주(2001), 안병조(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갈등이 높은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도구적 역할, 성취 지향적 성향을 갖도록 하며, 더 많은 사회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열에 따른 차이에서는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학생보다 갈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전체적인 만족도 차이에서는, 부모와의 만족도, 형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에서 갈등의 차이가 있었고, 친구만족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갈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 자녀-부모와의 갈등이 일상적인 매일의 가족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이주옥, 1994; 정경아, 1993)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학교생활 변인보다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차이에서는, 모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개인생활과 의사결정 및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갈등이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의사

소통할 기회가 적어서 생기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른 변인 부모연령, 부모학력, 월수입, 부직업, 가족형태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가족관계 만족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청소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자녀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남학생의 갈등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효율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을 조사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겪는 갈등의 영역을 파악하고 다른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보다 진전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시내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갈등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 자녀간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 자녀간의 갈등 중에서 가장 갈등수준이 높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숙(1987).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논문집**, 15, 9-40.
- 김경화(198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아(1995).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와 청소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충배(1988).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대전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식, 이경주(2001).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갈등과 갈등표출방식. **대한가정학회지**, 39(1), 29-38.
- 안병조(1984). 고등학교 학생에 있어서 갈등실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질적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아(1993). 사춘기 발달과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희, 강경화, 도희숙(2006). 부모교육사 기초연구: 고등학생의 부모역할 기대. **부모교육연구**, 3(2), 51-67.
- 한남제(1984). **한국도시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Ellis-Schwabe, M., & Thornburg, H. D.(1986). Conflict areas between parents and their adolescent. *Journal of Psychology*, 120(1), 59-68.
- Rubenstein, J. L., & Feldman, S. S.(1993).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in adolescent boys : Antecedents and adaptational correlat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 3(1), 41-66.
- Smetana, J. G.(1989). Adolescent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